중국의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고찰*

A Study on the Description Elements of the Colophon in Chinese Books

이 명 규(Myoung-Gyu Lee)**

〈목 차〉

Ⅰ. 서론
Ⅱ. 도서 판권기의 개념
 1. 용어와 정의
 2. 판권기의 기능
Ⅲ. 도서 판권기 변천과 법령
 1. 판권기 변천
 2. 판권기 관련 법령
Ⅳ. 판권기 기술형식과 요소
 1. 판권기 기술 사례
 2. 판권기 위치와 형식
 3. 판권기 기재 요소
Ⅴ.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판권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고 중국에서 발행하는 도서의 판권기 변천사, 관련 법률, 기재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도서 판권기를 살펴보면, 판권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판권보호와 판본기록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판권기는 당해 도서의 서지사항을 특정한 곳, 즉 표제지 이면에 모아서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 판권기에 기술되는 서지사항은 출판기술의 발전과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서지사항들이 추가로 기재되고 있다. 이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유용한 정보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키워드: 판권기, 간기, 판권지, 서지기술사항, 중국 출판

ABSTRACT

This study arranged the function and role of colophon and looked around the history, relevant laws, and description elements of books issued in China. According to the colophon of books issued from China, all colophon have copyrights and description elements in common. Colophon is that we recorded the bibliographic area of the proper book in special place, namely the inside of the cover. Besides, the colophon additionally includes necessary bibliographic area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publishing technology and transition of publishing environment. This colophon is offered as useful sources of information when librarians want to make up the catalog in the library.

Keywords: Colophon, Imprint, Bibliographic description area. Copyrights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 논문접수: 2013년 8월 20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2일

www.kci.go.kr

Ⅰ. 서 론

문자가 없던 구술문화에서는 어떤 사실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기억이었다. 그 후 문자의 도입으로 기억을 이미지와 글로 표현하여 지속시킬 수가 있었다. 책은 이런 과정의 결과이며 복합적으로 연관된 기술의 핵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인간의 사상, 감정, 아이디어, 지식 등을 기록하며 그 사회의 문화와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는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을 만드는 과정과 책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배포나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이라 한다. 이처럼 출판물은 지적 창작물의 기본적인 표현매체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틀을 유지하면서 출판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판권기 역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술되는 요소나 위치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어떤 책에 대한 목록을 작성 할 때, 채기하는 정보원은 원칙적으로 도서 자체에 기초하여 그 자료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는데, 기술하기 위해 참조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는 표제면, 판권기, 이표제면, 표지, 약표제면 등의 순이다.[1] 이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보원을 담고 있는 것이 판권기이다. 다시 말해 판권기에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외에도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 서지기술 식별요소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판권기에는 해당 도서의 각종 정보가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권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 시대 또는 출판사 마다 그 기술요소 및 방법이 서로 다르며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에 출판량이 급속히 늘고 있는 중국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해서 판권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중국에서 발행하는 도서의 판권기의 변천사와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본 후, 실제로 도서의 판권기 사례를 제시하여 판권기 기재 요소를 중국의 출판관련 법률과 목록규칙에 제시한 서지기술 요소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서 판권기의 개념

판권기는 책을 인쇄하여 출판할 때 그 책의 맨 끝에 별지로 홀수쪽 혹은 표제지 이(뒷)면에 책과 관련된 모든 서지 사항을 기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리고 판권을 담은 공간이라고도 할

1)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p.96.
2) 상게서

www.kci.go.kr

수 있다. 판권기를 영어로는 colophon, 중국어로는 반추엔이에(版權葉), 우리나라 언어로는 판권, 판권기, 판권지, 판권면, 판권장, 간기, 간기면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1. 용어와 정의

한국출판연구소에서 펴낸 『出版辭典』[3]에는 도서정리에 필요한 서지기술사항의 정보를 담고있는 주정보원인 판권기에 관련한 용어로 '판권기'[4]를 비롯하여 '판권(版權)', '판권면(版權面)', '판권장(版權張)', '판권지(版權紙)', '간기(刊記)' 등을 싣고 있다. 이 용어 중에서 '판권면'과 '판권장'은 '판권'을 참조하게 하여 이음동의어(異音同意語)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판권'[5]은 2가지의 의미, 즉 하나는 법률적 권리로 다른 하나는 판권기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으며, '판권기'는 해당도서의 서지사항들을 기재하는 내용, 위치 등을 나타내고 있고, '판권지'[6]는 판권기 역사, 기재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결국 이는 출판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고 중복되는 뜻의 다른 단어들을 모두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용어 통일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7]에 정의된 '판권기(colophon)'[8]의 내용은 앞의 『출판사전』에 나타

3) (재)한국출판연구소, 出版辭典(서울: 범우사, 2002).

4) 판권기 colophon :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페이지)에 저자나 편자, 역자, 서명, 발행처, 인쇄소, 인쇄나 발행일자, 판차, 가격, 저작권, 기타 발행상의 조건 등을 표시한 것. 혹은 이것이 표시된 면. 저자의 약력, 기타 저작 등에서 집필분담 사항을 밝힌 것도 있다. 판권기에 기재된 사항은 동서인 경우 목록작성에서 주정보원으로 취급되어 중요시된다.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년은 판권년이라고도 한다. 서구에서는 판권기에 기재된 제 사항을 표제면이나 이표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판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판권(版權) copyright : ① 저작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무체재산권의 하나. 도서출판에 관한 이익을 전유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출판을 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설정한다. ② 책의 서지사항이 기록된 1면. 간기면(刊記面)이라고도 한다. 구문서(歐文書)에서는 흔히 표제지 뒷면을 이용하나 우리의 관례는 책의 뒷부분에서 맨 뒤에 두고 있다. 판권면의 표기사항으로는 저자(역자・편자) 및 저작권자, 책명, 발행일, 판수와 판명, 발행자, 발행소 등이 필수이며, 표시, 검인, 정가, 조판소 등의 표기나 저자의 약력 등이 기재될 수 있고 도서코드가 표기될 수 있다. 정기간행물에서는 그 등록번호와 연월일, 제호, 간별(刊別), 발행인, 인쇄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필수이다. 판권면의 양식은 일정하지 않으며 출판사의 성격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6) 판권지(版權紙) colophon, imprint : 책자・잡지의 출판사항을 기재한 것. 한문을 쓰는 나라에서는 출판 연월일・장소・저자・간행자 등 출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간기(刊記)라고 하며 장문의 간기를 간어(刊語)라고 부른다. 간기는 권말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양의 옛날 출판물은 간기를 권말에 붙이고 콜로폰(colophon)이라고 하였으며, 프린터즈 마크(printer's mark)를 함께 인쇄한 것이 많다. 1462년 퓌스틋Pvj 인쇄소에서 간행된 『42행 성서』는 간기와 간어를 권말에 인쇄해 넣은 최초의 출판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록의 일종으로 취급하거나 권말의 면수의 일부로 인쇄한다. 구미의 서적에서도 표제지의 뒷면 혹은 권말에 두며 잡지 등은 표제지의 하부에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임프린트(imprint)라고 한다.

7)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8) 판권기 colophon :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페이지)에 저자나 편자, 역자, 표제, 발행처, 인쇄소, 인쇄나 발행일자, 판차, 가격, 저작권, 기타 발행상의 조건 등을 표시한 것, 혹은 이것이 표시된 면. 저자의 약력, 기타 저작 등에서 집필분담 사항을 밝힌 것도 있다. 판권기에 기재된 사항은 동서인 경우 목록작성에서 주정보원으로 취급되어 중요시된다.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년은 판권년이라고도 한다. 서구에서는 판권기에 기재된 제 사항을 표제면이나 이표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판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www.kci.go.kr

난 용어 '판권기'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서는 판권기 이외의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헌정보학계에서는 '판권기' 용어로 통일하여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간기(刊記)'에 대해서는 "고서에 있어서 목판본의 간행사항을 적은 기록"으로 정의하여 '판권기'와 '간기'의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또 '판권(copyright)'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저작권(copyright)'으로 통일하여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당해 도서의 서지사항을 특정지면에 표기한 것"인 'colophone'을 '판권기'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판권기' 용어를 정의할 때 특정지면(도서의 말미, 표제지 이면)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서지사항을 기록하는 '~기(~記)'라는 용어보다는 '~지(~紙)' 또는 '~면(~面)'으로 표기하여 '판권지'라고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해 도서의 서지사항을 특정한 지면(표제지 이면, 마지막 페이지)에 기술해 놓은 것을 판권지(Colophon)라고 하고, 표제지와 판권지에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의 발행사항을 기술해 놓은 것을 간기(Imprint)라고 하며, 저작권을 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기(Copyright)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9] 대부분의 경우, 판권지는 간기와 저작권기를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다. 『출판사전』과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나타난 용어를 정리[10]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판권기 정의 및 기재 위치

현행용어	현행 기재위치	정의	변경용어(안)	변경 기재위치(안)
Colophon Imprint 판권기 판권지 판권장 판권 간기 간기면	도서의 말미 또는 표제지 이면	당해 도서의 서지사항을 특정 지면에 표기한 것	판권지 Colophon	표제지 이면, 도서의 말미
Imprint 발행사항 출판사항	표제지 그리고 표제지 이면	당해 도서의 표제지와 판권지에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의 발행사항을 기술해 놓은 것	간기 Imprint	표제지, 표제지 이면, 도서의 말미
판권 copyright	도서의 말미 또는 표제지 이면	저작권을 표시하는 사항	저작권기 Copyright	표제지 이면, 도서의 말미

이와 같이 '판권기(colophon)'는 "책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11]으로 도서의 말미나 마지막 쪽에 책과 관련한 모든 서지사항, 즉 저자, 역자, 편자, 표제, 부제, 총서명, 판쇄표시, 발행처, 인쇄소, 발

9) 이명규,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서지 요소 고찰(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18-219.
10) 상게서
11) 열린책들 편집부, 열린책들 편집매뉴얼(서울: 열린책들, 2010), p.321.

www.kci.go.kr

행이나 인쇄일자, 발행출판사의 소재지, 출판사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정가, 저작권 표시, ISBN, CIP, 저자약력 등을 기재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목록 작성을 할 때 목록의 서지기술사항의 정보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관한 권리나 출판권 등에 관한 내용의 정보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판권기의 기재 위치는 출판사의 임의대로 구성할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판권기는 일반적으로 책 내용의 본문이 끝난 다음 마지막 홀 수 페이지에 작성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서처럼 표제지 이면에 작성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표제지 앞쪽의 면지에 판권기를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2. 판권기의 기능

판권기는 도서를 발행할 때, 서지학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을 한데 모아 기재한 것으로 그 기능에는 서지사항 정보원, 자작권 관련 사항,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2)]

가. 서지사항 정보원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목록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고려하여 편성된 목록을 의미하는데, 이 검색도구인 목록을 통해서 적합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목록기술형식을 정하고 그 기술요소와 배열 수단을 정해놓은 규칙이 바로 '목록 규칙'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따르면, 단행본의 기술에 관한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보면, 채기하는 "정보원은 원칙적으로 도서 자체에 기초하여, 그 자료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는데, 기술하기 위해 참조하는 정보원의 우선순위는 ① 표제면, 판권기, 이표제면, 표지, ② 약표제면, 권두 ③ 책등 등의 순이다.[13)] 이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보원을 담고 있는 것이 판권기이다. 다시 말해 판권기에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외에도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 도서관 목록작성에 필요한 서지기술 식별요소가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저작권 관련 사항

판권기는 저작권과 출판권을 담는 지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하나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출판할 권리와 저작자가 저작물을 출판할

12) 이명규,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변천 고찰(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3호(2010. 9), pp.332-333.
13)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p.96.

www.kci.go.kr

타인에게 원작대로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그림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14] 이에 따라 출판권에는 저작권 및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저작권 표시는 출판권의 주요 기능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저작권조약(UCC)과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작권 표시는 무방식주의로 저작권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 복제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와 '국내의 저작물일 경우 복제권자의 성명과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15]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번역물 및 국내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표시로 ⓒ 또는 (c)기호 다음에 저작자 이름과 초판 발행연도를 기재한 방식을 따르며 검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저작자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포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16]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판권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또한 출판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받아 출판을 하여야 하며 특약이 없는 출판물은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주요 공간은 판권기가 될 것이다.

한편, 판권과 유사한 말로 '판권장'이 있는데, 판권장이란 "책의 마지막 면에 발행 연월일, 저자 또는 역자의 이름, 인쇄자·발행인, 발행처 이름, 정가 등을 표시한 것. 이 면에는 저자나 역자의 검인지를 붙이는 관례가 있었는데 근년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17]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인지가 저작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년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이 활성화되면서 검인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판권기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출판사는 저자약력, 파본교환안내 등의 사항을 제공하여 독자가 저자의 약력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판권기에는 독자가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표기도 있다.

이와 같이,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기능으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결정짓는 기준 근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독자에게

14) 강희일, 한국출판의 이해(서울: 생각의 나무, 2007), p.78.
15)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개정 2010. 1. 27).
16) 저작권법, 제53조(개정 2009. 7. 31).
17) 엔싸이버백과검색, 〈http://www.encyber.com/search__w〉 [인용 2010. 8. 10].

www.kci.go.kr

책과 출판사에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판권기는 책의 호적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불법 출판물이 되며, 그 책의 가치는 거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도서 판권기 변천과 법령

중국에서 도서를 발행할 때, 그 발행물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변천사[18]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판권기 기술요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판권기 사례를 제시하고, 이 판권기를 중국편목규칙의 서지기술사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판권기 변천

중국전통도서의 판권기는 남송 중엽에 나타났다. 매산정씨가 간인한『京都事略』에 "미산정사인댁간인, 이신상사불허복판(眉山程舍人宅刊印, 已申上司不許覆板)"[19]이란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의 판권을 보호하는 문구이다.

현대의 도서 판권기의 출현은 1901년 전후로 상해(上海)에 있는 작신사도서국(作新社圖書局)에서 도서를 인쇄하고 발행할 때, 일본의 판권기 격식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판권기에는 서명, 저자, 출판자, 인쇄자 등의 항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1902년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출판한『歐洲十九世紀史』와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日本明治學制沿革史』의 판권기는 초기의 대표적인 것이다.

1906년『大清印刷物專律』에 "모든 인쇄인은 어떠한 것을 인쇄하든지, 반드시 인쇄물에 명백하고 뚜렷하게 인쇄인의 성명 및 인쇄소재를 밝혀야 한다"[20]고 명문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본질은 생각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나 현대 판권기에 대한 발전을 조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28년 국민당정부는 저작권법을 반포하였고, 1930년에는 출판법을 공포하였다. 출판법 제16조에 "서적 또는 기타 출판물은 반드시 마지막 면에 발행인명, 주소, 발행연월, 발행소와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21]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는 법을 수정하여 저작인명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판권기의 내용과 틀이 발전하고 완성되게 하였다.

---

18) Baidu encyclopedia〈http://baike.baidu.com/view/240400.htm〉[cited 2013. 1. 24].
19) 眉山程舍人宅刊印, 已申上司不許覆板: 미산정사인댁에서 출간하고 인쇄함, 이미상사에 신청했으니 복사를 금지함.
20) 凡印刷人不論印刷何种物件, 務須于印刷物体上明白印明印刷人姓名, 及印刷所在
21) 書籍或其他出版品, 応于其末幅記載發行人之姓名, 住所, 發行年月, 發行所及印刷所之名稱及所在地

www.kci.go.kr

이상과 같이 신중국의 해방군, 즉 공산당의 등장하기 전까지의 도서출판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판권기의 형식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판본기록과 판권보호에서 모두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판권소유', '저작권이 있으니 복제는 불허함' 등의 기록으로 보아 이미 판권보호가 공통된 의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기에 연관된 표시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의 출판은 이윤추구가 주요 목적이었다.

1949년 중공중앙선전부출판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판권기는 극히 간소하게 제작되었다. 단지 서명, 저자, 출판발행자, 출판연월일, 가격 등만 있고 판권소유의 글들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반포되지 않았지만 여러 보호조치가 취해졌다.

1950년 9월 전국출판공작회의에서 '출판공작의 개진과 발전에 관한 결의'에서 저작권과 출판권을 존중한다고 하였고, 또 "판권에는 초판, 재판의 시간, 발행부수, 저자, 번역자명과 번역본의 원서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2]고 분명하게 지시하였다. 50년대 초반에 판권기에 변화의 추세가 보이기 시작한다. 판권기의 하단에 총목번호와 인쇄 수의 기록이 나타난다.

1951년 중앙인민정부출판총서(中央人民政府出版總署)에서 '도서, 잡지판본기록에 관한 규정(關于圖書雜誌版本記錄的規定)'을 반포하였고, 1954년에 '도서판본기록에 관한 규정(關于圖書版本記錄的規定)'으로 수정하였으며, 1972년에 재수정하였다. 판본기록은 5가지 내용,즉 서명(혹은 사진, 그림명); 저작자(혹은 화가), 편집자, 번역자의 성명(또는 필명, 기관명); 출판자, 인쇄자와 발행자의 명칭; 출판연월, 판차, 인쇄회차, 인쇄수량; 통일도서표준번호, 가격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번역서적은 반드시 원저자의 국적; 원서명, 원저자명 및 출판자 명칭의 원문; 번역본의 출판연월 및 판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949년 신중국의 설립후 정권의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사업은 국가소유로 귀속되어 출판, 유통은 '국가신문출판총서'가 통제하였으며 집권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판권기에는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가 기재되었으며, 판권관련 내용의 요소는 사라지거나 발전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출판사도 사회공익과 함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관리 형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23] 1977년 '출판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출판활동에 종사할 때는 사회공익과 경제적 이익을 결합해야 한다"[24]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1월부터 도서 판매와 발행관리를 위해 모든 도서는 중국표준도서번호(GB5795-86)를 적용하여 통일도서표준번호를 대체하였고, 1990년에는 국가표준 '도서출판목록데이터(圖書在版編目數据)'에서 판권기 상단에 반드시 출판시도서목록데이터(CIP)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CIP데이터는 출판시도서목록표제, 저록데이터, 검

22) 在版權上, 對于初版, 再版的時間, 印數, 著者, 譯者的姓名及譯本的原名稱等等, 均応作忠實的記載
23) 김윤희, 중국의 출판업시장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서울: KOTRA, 2004), p.5.
24) '出版管理條例' 第4條 從事出版活動, 應當將社會效益放在首位, 實現社會效益与經濟效益相結合

www.kci.go.kr

색데이터, 기타데이터 등 4개의 단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1년 9월 1일부터는 판권기에 반드시 출판사의 새등기번호, 즉 '(地區)新登字 XXXX号'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서간출판 영업허가증과 같은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출판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1991년 6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었고, 1992년 7월 1일 중국은 베른공약과 세계판권공약조직에 참석하였으며, 베른공약은 1992년 10월 15일에, 판권공약은 10월 30일에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부 출판사에서 판권기에 '○○版圖書, 版權所有, 盜印必究'라는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 출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정당한 출판이라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로는 사회공익과 경제적 이윤을 위한 출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판권기에는 여전히 정부 통제를 위한 요소, 시대 흐름을 반영한 도서 목록작성관련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 그리고 판권에 관한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이와 같이 판권기의 역사는 사실 판권에 관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판권기의 정의에서도 논한 것처럼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해당도서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해당도서의 대외적인 책임과 권한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2. 판권기 관련 법령

중국에서는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출판 산업과 출판사업을 발전·번영시키고, 법에 의한 공민의 출판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의 의거하여 출판관리체제의 최고의 법규로서 1977년에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출판활동에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물에는 도서를 포함해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반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도서의 출판과 판권기에 관련있는 법령은 주로 '출판관리 조례(出版管理條例)'라고 볼 수 있다. 이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의 판권기에 기술되는 사항이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관리 조례' 제3장(출판물의 출판) 제28조에 "출판물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자, 출판자, 인쇄자 또는 복제자, 발행자의 명칭, 주소, 도서번호, 연속간행물번호 또는 레코딩 코드, 목차 내용, 출판일자, 발간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출판물의 규격, 판형, 지면 배치, 장정, 교정 등은 반드시 국가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출판물에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국가의 법률 규정과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관리조례'에 의거 도서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기록사항은 저자, 출판자, 인쇄

www.kci.go.kr

자 또는 복제자, 발행자의 명칭, 주소, 도서번호, 목차 내용, 출판일자 등이다.

그리고 도서에 필수적으로 기록되는 도서번호는 도서의 통일 번호로서 1956년 2월에 문화부 출판사업관리국에서 반포한 '전국 도서의 통일 도서번호 방안(全國圖書統一書號方案)'과 1972년 12월에 국무원출판구(國務院出版口)에서 반포한 '전국 도서의 통일 도서번호 방안'에 근거하여 도서 분류번호, 출판사 코드, 순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통일 도서표준번호를 1988년 1월부터 중국표준도서번호로 대체하여 적용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중국표준도서번호(中國標準書號)'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GB/T 5795-2006)이 전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출판물이 사용하는 순위와 바코드를 원래의 10자리에서 13자리수로 늘여서 세계 번호와 같이 하였다. 이 새 표준의 도서번호는 도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디오/비디오 제품과 전자출판물에도 적용된다. 중국 표준 도서번호에 대한 관리는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條碼中心)에서 책임진다.

한편, 중국에는 납본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출판관리조례' 제22조에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國家圖書館), 중국판본도서관(中國版本圖書館) 및 국무원출판행정주무부서(國務院出版行政主管部)에 무상으로 납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물 납본제도는 출판물국가등기제도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출판물 납본의 목적은 출판물을 심사하고, 자작권과 출판권을 등재하며, 국가 도서목록의 편성과 더불어 문화의 보존과 출판물의 이용에 있다. 결국 국가가 출판물 판본의 보존과 국가에서 등록하고 기록하는 도서 목록 활동의 진행에 확실한 보장을 하고, 국내외의 출판물 자원 공유와 문화 교류를 위한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도서관과 국가판본도서관에 납본하는 방식은 별도의 서식과 절차 없이 출판사에서 발행한 출판물을 두 도서관에 제출하고 있다.

Ⅳ. 판권기 기술형식과 요소

1. 판권기 기술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도서의 판권기에 기술되는 서지사항으로는 저(역, 편)자, 도서명, 판·쇄, 발행일, 발행자, 정가, 인쇄소, 발행처 이름·주소, 출판사 등록 번호와 등록일자, ISBN 등의 서지학적 정보를 표기한다. 중국에서 발행된 도서의 판권기의 사례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면서, 도서관에서 목록작성에 적용하는 중국목록규칙(中國文獻編目規則)의 단행본(普通圖書)[25] 기술사항을 대입해 살펴보았다.

25) 國家圖書館 中國文獻編目規則 修訂組, 中國文獻編目規則, 第2版(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pp.27-51.

www.kci.go.kr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권기는 당해 도서의 다양한 서지정보가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권기를 통해 당해 출판물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과 기타 사항을 한 곳에 모아 기술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나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版權葉 例示	中國文獻編目規則 普通圖書
圖書在版編目(CIP)數据 編輯工作思考/朱象清著.-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2.8 ISBN 978-7-112-14514-0 I.①編… Ⅱ.①朱… Ⅲ.①編輯工作-研究 Ⅳ.①G232 中國版本圖書館CIP數据核字(2012) 第161828号	圖書在版編目數据 (GB12451-90)
編輯工作思考 朱象清 著 中國建築工業出版社, 發行(北京西郊百萬庄) 各地新貨書店, 建築書店經銷 北京京点設計公司制版 北京云浩印刷有限責任公司印刷 開本: 787×960毫米 1/16 印張: 12½ 字數: 210千字 2012年 10月第一版 2012年 10月第一次印刷 定價: 39.00元 ISBN 978-7-112-14514-0 (22586) 版權所有 翻印必究 如有印裝質量問題, 可寄本社退換 (郵政編碼 100037) 責任編輯: 吳佳, 李成成 責任設計: 董建平 責任校對: ?劍, 劉鈺	題名(표제) 責任說明(책임표시) 發行者(발행처), 發行地(발행지) 印刷者(인쇄처) 載体形態項(형태사항) 尺寸(크기) 發行年(발행년), 版本項(판사항) 獲得方式和定價(입수방식) 標準編号(표준번호)

〈그림 1〉 중국 도서의 판권기 예시1

www.kci.go.kr

版權葉 例示	中國文獻編目規則 普通圖書
北京市版權局著作權合同登記号 圖字:01-2008-1926号 The Book Publishing Industry 2e Albert N. Greco Copyright ©2005 b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版權所有, 侵權必究. 侵權擧報:010-62782989 13701121933	
圖書在版編目(CIP)數据 圖書出版業:第2版/(美)格雷科(Greco,A.N.)著;周麗錦, 褚悅聞譯.-北京:淸貨大學出版社, 2011.3 (新槪念出版論叢) 書名原文:The Book Publishing Industry ISBN 978-7-302-23942-0 I.①圖… II.①格… ②周 … ③褚… III.①圖書-出版工作-硏究 IV.①G23 中國版本圖書館CIP數据核字(2011) 第023911号	圖書在版編目數据 (GB12451-90)
責任編輯: 紀海虹 封面設計: 傳瑞學 責任校對: 王榮靜 責任印刷: 楊艷 出版發行: 淸貨大學出版社 地址:北京淸貨大學學硏大厦A座 http://www.tup.com.cn 郵編: 100084 社總機: 010-62770175 郵購: 010-62786544 投稿與讀者服務: 010-62776969 c-service@tup.tsinghua.edu.cn 質量反饋: 010-62772015, hiliang@tup.tsinghua.edu.cn 印裝者: 北京嘉實印刷有限公司 經銷: 全國新貨書店 開本: 173×235 印張: 20 字數: 335千字 版次: 2011年 3月第1版 印次: 2011年 3月第1次印刷 印數: 1~3000 定價: 45.00元 産品編号: 027337-01	發行者(발행처), 發行地(발행지) 印刷者(인쇄처) 載体形態項(형태사항) 尺寸(크기) 發行年(발행년), 版本項(판사항) 獲得方式和定價(입수방식)

〈그림 2〉 도서의 판권기 예시2

이상과 같이, '出版管理條例', '圖書在版編目數据' 등 도서 발행관련 법령과 각종 서식을 통해 도서의 판권기에 기재되는 서지 요소와 실제로 도서의 판권기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을 기재 요소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www.kci.go.kr

〈표 2〉 판권기 예시, 각종 법령과 서식의 서지 요소 비교

구분	구성 요소			<그림1> 예시	<그림2> 예시	出版管理條例 第28條	中國文獻 編目規則2版	爲讀者 情報	위치
서지 요소	書名(서명)			○	○	○	○		
	作者(저자)			○	○	○	○		
	刊号, 版号(판차)				○	○	○		
	版權(복사불허)			○	○	○		○	상부
	在版編目數据(CIP)		표제	○	○	○	○		중부
			저록데이터						
			검색데이터						
			기타데이터						
	出版日期(발행년월)			○	○	○	○		하부
	刊期(간행일자)			○	○	○			
	ISBN			○					
	定價(가격)			○	○				
	印數(인쇄수)				○				
	版本記錄事項	발행 관계자	責任編輯	○	○	○	○		
			封面設計	○	○	○			
			責任校對	○	○	○			
			責任印刷		○	○			
		연락처	출판발행처	○	○	○		○	
			주소	○	○	○		○	
			웹사이트		○	○		○	
			전화번호		○			○	
			e메일		○			○	
			파본교체안내	○	○			○	
			印裝者	○	○				
			經소	○	○				
		형태	出版物 規格			○	○		
			開本(판형)	○	○	○	○		
			版式(지면배치)	○					
			裝幀(장정)	○	○				
			校對(교정)	○	○				

'출판관리조례'에 명시하고 있듯이, 출판물에 기재할 사항은 실제로 판권기에 대부분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한 기타관련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많은 기재 요소들도 판권기에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도서의 판권기에 기재되는 요소를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의 저록을 작성할 때 활용되는 서지사항, 정부에서 출판물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이다.

도서관에서 도서의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서지사항은 중국문헌편목규칙에 명시된 서명, 저자, 판차, 발행년월, 형태사항 등이다. 이러한 서지사항의 내용이 판권기에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

www.kci.go.kr

라 중국의 CIP제도의 도입에 따라 표제, 저록데이터 등 표준목록을 판권기에 기술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출판관리조례'를 통해 정부에서는 도서 발행에 관한 관리와 유통에 관여를 하고 있으며, 출판물의 형식을 정해놓음으로써 국가 표준과 규범을 준수토록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사불허 등의 표기를 통해 판권 및 저작권 관련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담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판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한 채널로 인식할 수 있다.

2. 판권기 위치와 형식

가. 위치

중국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판권기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속표지의 뒷면이나 본문 뒷면의 빈페이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국가표준 '도서서명페이지'GB12450-90에 의거하여 "주서명지[26]의 뒷면에 위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속표지[27] 이면에 판본기록 등을 기술하여 판권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권기는 주서명지에서 속표지를 제외한 판본기록지[28]를 말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판권기에는 속표지에 기재되는 서명, 저자명, 출판자명 등은 판본기록지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주서명지는 속표지와 그 이면지인 판본기록지가 앞뒷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권기의 위치는 속표지의 뒷면, 즉 판본기록지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서명지인 속표지와 판권기가 앞뒷면에 위치함으로써 양자가 상호호응하며 도서정보를 얻는데 편리할 것이며 사서들의 목록작성업무에 효과적일 것이다.

나. 형식

중국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판권기의 형식에서도 일치하지 않다. 이는 판권기의 위치하고 관련이 있다. 판권기가 속표지 이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서명, 저자명, 출판자명 등이 판권기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본문의 맨뒤의 빈페이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든 판본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판권기에 기록되는 요소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판본기록과 판권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판본기록은 중앙인민정부출판총서(中央人民政府出版總署)에서 정한 '도서판본기록에 관한 규정(關于圖書版本記錄的規定)'을 통해 기록 항목을 명시하였다. 판본기록의 내용은

26) '주서명지'는 "도서의 서명, 저자, 출판자, 판권설명, CIP, 판본기록 등의 내용이 실린 페이지"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속표지'와 '판본기록지'를 포함한다.
27) '속표지'는 도서의 서명, 저자, 출판자 등을 기술하고, '주서명지'의 앞면, 즉 홀수면에 위치한다.
28) '판본기록지'는 도서의 인쇄판차, CIP, 판본기록 등을 제공한다. '주서명지'의 뒷면, 즉 짝수면에 위치한다.

www.kci.go.kr

서명(혹은 사진, 그림명); 저작자(혹은 화가), 편집자, 번역자의 성명(또는 필명, 기관명); 출판자, 인쇄자와 발행자의 명칭; 출판연월, 판차, 인쇄회차, 인쇄수량; 통일도서표준번호, 가격 등 5개의 항목이다. 판권보호에 대해서는 '판권소유', '저작권이 있으니 복제는 불허함' 등으로 판권보호를 특별히 강조한 점으로 보면 적어도 형식으로는 이미 판권보호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 '圖書在版編目數据'(GB12451-90)에서, 출판시도서목록데이터(CIP)는 판권기에 반드시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가 판권기의 아래쪽이나 판구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판권문자서명의 글자체는 다른 요소에 비해 약간 크다. 나머지 문자의 배열에 대한 디자인은 화면을 미화하기 위하여 선과 란을 이용하여 장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판권기에는 상단에 CIP를 기재하고 판본기록의 항목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판권보호를 위한 문구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형식은 활자체와 활자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데, 앞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요소별로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는 형식이다.

3. 판권기 기재 요소

중국에서 활용되는 '주서명지'에 기재되는 요소, 즉 '속표지'와 '판본기록지'에 기재되는 다양한 내용[29]을 서지사항별로 그 정의와 기술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속표지(扉葉)

① 서명(書名)

서명은 표준서명, 등위서명 및 기타서명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서명의 편성은 반드시 두드러져야 한다.

② 저자(作者)

저자 명칭은 정식명칭을 사용한다. 번역서는 원저자의 이름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공저일 경우 속표지에는 주요저자를 기재하고, 전체 저자는 주서명지의 뒷면에 열거하여 기재한다.

③ 출판자(出版者)

출판자 명칭은 정식명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 소재지를 밝혀야 한다. 단 명칭에 소재지가 나와 있으면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 판본기록지(版本記錄葉)

① 판권설명(版權說明)

29)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view/240400.htm〉 [인용 2013. 1. 24].

www.kci.go.kr

저자 또는 판권소유자를 거쳐 권한을 위탁받고 출판한 작품을 가리키는데 판권부호를 표시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판권소유자의 성명 및 첫 출판연도도 밝혀야 한다. 판본기록지의 상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CIP(圖書在版編目數据)

도서출판물편목데이터의 선택 및 편성격식은 GB/T12451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기록은 판본기록지의 중부에 기재해야 한다.

③ 판본기록(版本記錄)

판본기록의 내용에는 CIP에 포함되지 않은 출판책임인 기록, 출판발행자 설명, 매체형태기록, 인쇄발행기록 등을 기재한다. 이 기록은 판본기록지의 하부에 기재해야 한다. 출판책임인에 대한 기록은 책임편집, 장정디자인, 교정책임, 기타책임과 관련한 사람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출판발행자 설명은 출판자, 조판인쇄와 장정자, 발행자 명칭은 모두 정식명칭을 사용한다. 출판자 명칭 아래에 상세한 주소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입할 수 있다. 매체형태기록은 GB/T788을 참조하여 도서 폭 크기를 열거하여 기재한다. 여기에는 인장수, 글자수 등을 열거하여 기재한다. 또한 첨부물의 유형과 수량을 기재한다. 인쇄발행기록은 제1판, 본판, 인쇄회차와 인쇄일자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인쇄부수와 정가를 기재한다.

이와 같이 판본기록지, 즉 판권기에 기재되는 요소에 대한 기능과 위치를 살펴보았다. 판권기에 기술되는 내용을 특성과 기재위치로 살펴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판권관련 부분, 다른 하나는 도서편목데이터 부분 그리고 해당도서의 서지사항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그림 2〉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www.kci.go.kr

版權葉 例示	版權葉 區分
北京市版權局著作權合同登記号 圖字:01-2008-1926号 The Book Publishing Industry 2e Albert N. Greco Copyright ©2005 b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版權所有, 侵權必究. 侵權擧報:010-62782989 13701121933	版權關聯 事項
圖書在版編目(CIP)數据 圖書出版業:第2版/(美)格雷科(Greco,A.N.)著;周麗錦,褚悅聞譯.-北京:淸貨大學出版社, 2011.3 (新槪念出版論叢) 書名原文:The Book Publishing Industry ISBN 978-7-302-23942-0 Ⅰ.①圖… Ⅱ.①格… ②周 … ③褚… Ⅲ.①圖書-出版工作-硏究 Ⅳ.①G23 中國版本圖書館CIP數据核字(2011) 第023911号	圖書在版編目數据 (GB12451-90)
責任編輯: 紀海虹 封面設計: 傳瑞學 責任校對: 王榮靜 責任印刷: 楊艷 出版發行: 淸貨大學出版社 地址:北京淸貨大學學硏大厦A座 http://www.tup.com.cn 郵編: 100084 社總機: 010-62770175 郵購: 010-62786544 投稿與讀者服務: 010-62776969 c-service@tup.tsinghua.edu.cn 質量反饋: 010-62772015, zhiliang@tup.tsinghua.edu.cn 印裝者: 北京嘉實印刷有限公司 經銷: 全國新貨書店 開本: 173×235 印張: 20 字數: 335千字 版次: 2011年 3月第1版 印次: 2011年 3月第1次印刷 印數: 1~3000 定價: 45.00元 産品編号: 027337-01	版本記錄 內容

<그림 3> 판권기 구성

www.kci.go.kr

Ⅴ. 결 론

판권기는 무대 뒤에 있는 역할이다. 판권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출판의 역사가 빛나고 사서나 아키비스트, 역사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판권기와 관련한 다양한 정의와 동의어에 대해 재정립을 해보았으며, 중국에서 판권기의 역사적 배경과 판권기 관련 제도와 기재요소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해 도서의 특정한 지면(표제지 이면, 마지막 페이지)에 도서 관련 서지사항을 기술해 놓은 것을 판권지(Colophon)라고 하고, 표제지와 판권지에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의 발행사항을 기술해 놓은 것을 간기(Imprint)라고 하며, 저작권을 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기(Copyright)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판권기의 형식은 일원화되지는 않았지만 판본기록과 판권보호에 관한 내용형식이었다. 그러나 1949년 신중국의 수립후 도서출판 사업은 국가소유로 귀속되어 판권기에는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가 기재되었으며, 판권관련 내용의 요소는 사라지거나 발전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이후로는 사회공익과 경제적 이윤을 위한 출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판권기에는 여전히 정부 통제를 위한 요소, 시대 흐름을 반영한 도서 목록작성관련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 그리고 판권에 관한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셋째, 중국의 '출판관리조례'에 의거 도서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기록사항은 저자, 출판자, 인쇄자 또는 복제자, 발행자의 명칭, 주소, 도서번호, 목차 내용, 출판일자 등이다. 이 기록사항의 대부분이 판권기에 수록된다.

넷째, 판권기에 기록되는 요소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판본기록과 판권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판본기록의 내용은 서명(혹은 사진, 그림명); 저작자(혹은 화가), 편집자, 번역자의 성명(또는 필명, 기관명); 출판자, 인쇄자와 발행자의 명칭; 출판연월, 판차, 인쇄회차, 인쇄수량; 통일도서표준번호, 가격 등 5개의 항목이다. 판권보호에 대해서는 '판권소유', '저작권이 있으니 복제는 불허함' 등으로 판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시도서목록데이터(CIP)는 판권기에 반드시 인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판권기는 주서명지에서 속표지를 제외한 판본기록지[30]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판권기에는 속표지에 기재되는 서명, 저자명, 출판자명 등은 판본기록지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주서명지는 속표지와 그 이면지인 판본기록지가 앞뒷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권기의 위치는 속표지의 뒷면, 즉 판본기록지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서명지

30) '판본기록지'는 도서의 인쇄판차, CIP, 판본기록 등을 제공한다. '주서명지'의 뒷면, 즉 짝수면에 위치한다.

www.kci.go.kr

인 속표지와 판권기가 앞뒷면에 위치함으로써 양자가 상호호응하며 도서정보를 얻는데 편리할 것이며 사서들의 목록작성업무에 효과적일 것이다.

여섯째, 판권기는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활용되는 으뜸 정보원이다. 이 판권기에 기재된 CIP 요소들이 목록에 필요한 서지기술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판권기는 당해 도서의 서지사항을 특정한 곳, 즉 표제지 이면에 모아서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 판권기에 기술되는 서지사항은 출판기술의 발전과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서지사항들이 추가로 기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독자에게 또는 도서관의 목록 작성시에 유용한 정보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희일. 한국출판의 이해.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사전. 서울: 범우사, 2002.

부길만, 황지영 공저. 동아시아 출판문화사 연구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

신광웨이 저. 중국출판. 인트랜스번역원 역. 서울: 북폴리오, 2010.

열린책들 편집부 편. 열린책들 편집매뉴얼. 서울: 열린책들, 2012.

이명규.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서지 요소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10. 3), pp.211-231.

이명규. “우리나라의 도서 판권기 기술요소 변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3호 (2010. 9), pp.329-349.

최윤하. 도서 판권기의 기술요소 분석: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格雷科(Greco, A.N.) 著. 圖書出版業, 第2版. 周麗錦, 褚悅聞 譯. 北京: 清貨大學出版社, 2011.

孫玉林 主編. 圖書編輯實務. 重床: 重床大學出版社, 2012.

朱象清 著. 編輯工作思考.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2.

國家圖書館. 中國文獻編目規則 第2版.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Baidu百科〈http://baike.baidu.com/view/240400.htm〉[인용 2013. 1. 24].

Collin, P. H. and Guardian Newspapers Ltd. *Dictionary of Publishing And Printing*. 3rd ed. London: A & C Black, 2006.

Poynter, Dan. *Dan Poynter's Self-Publishing Manual*. 15th ed. Santa Barbara, Calif. : Para

www.kci.go.kr

Publishing, 200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idu encyclopedia〈http://baike.baidu.com/view/240400.htm〉 [cited 2013. 1. 24].
Boo, Gilman and Hwang, Ji-Young. Publishing History of East Asia. Seoul: Oruem Publishing Company, 2009.
Choi, Yun-Ha.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scriptional elements of the book colophon.* M.D.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Greco, Albert N. *The Book Publishing Industry.* 2nd ed. translated by Zhou Li Jin, Chu Yue Wen. Beijing: Tsinghua University Press, 2011.
Kang, Hee Il. *Introduction to Publishing in Korea.* Seoul: itreebook, 2007.
Korean Publishing Institute. *Publication Terminology Dictionary.* Seou : Bumwoosa, 2002.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Lee, Myoung-Gyu. "A study on the description elements of the book coloph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1(2010. 3), pp.211-231.
Lee, Myoung-Gyu.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elements of the book coloph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3(2010. 9), pp.329-349.
National Library of China. *Chinese Cataloging Rules.* 2nd ed. Beijing: Beijing Library Publishing Co., 2005.
Sun Yu Lin. *The Practice in Book Editing.* Chongqing: Chongqing University Press, 2012.
The Editorial Department of Open Books. *The Open Books Editorial Manual 2013.* Seoul: Open Books, 2013.
Xin, Guangwei. Publishing in China. *Translated by Intrans Company.* Seoul: Bookfolio, 2010.
Zhu Xiang Qing. *Understanding to the Editing Task.* Beijing : China-Building Publishing Company. 2012.

www.kci.go.kr